

한의학 자원 산업 육성 '맞손' 탄소저감형 녹비작물 종자 연구

무주군-한국한의학진흥원, 지역산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한국한의학진흥원과 함께 한의학 자원 산업 육성에 나선다. 무주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과 한의학 산업 지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무주군 측에서 황인홍 군수와 이해심 행정복지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정창현 원장을 비롯해 임원용 산업진흥본부장, 박상표 경영지원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주군 지역 한의학 자원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상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 △한의학의 미래까지 창출과 지역 한의학 산업 확대·성장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류 △무주군 지역 한의학 지원 사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천마, 머루의 주산지인 무주군과 한의학 자원 육성, 산업과 관련 정보와 기술, 인력 등을 활발히 교류한다면 훌륭한 지역 상생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한의학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지자체와 굳건한 협력을 통해 한의학 산업



무주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과 한의학 산업 지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의학 산업이 무주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척 기대가 크다"라며 "앞으로 지속 기술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무주의 한의학 자원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희망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한의학 산업 혁신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학 이용체계 개선, 한의학 문화진흥 사업을 펼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군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천마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머루 생산단지로서 소득 작목로 육성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국립농업과학원 협업 2026년까지 추진

진안군은 10일 오는 2026년까지 5개년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협업체 국내산 녹비작물 유기종자 생산·재종 기술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비작물은 토양 내 유기물 공급, 토양피복, 토양산층류 등 토양 병해충 억제 효과가 있으며 녹비작물 자체가 탄소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 탄소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기본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탄소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농업분야에서의 탄소발생량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녹비작물 종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자체 생산 공급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과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는 이에 따라 일부라도 국내 유기종자 수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먼저 올해는 불과종 작물인 수단그라스와 네마장황을, 가을파종 작물로는 보리와 유채를 재배하며 국내 보급이 가능한 유기종자를 생산 채종하는 기술을 익힌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 문화복지 공간 마련해야”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갑 의원은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로 겨울철에는 한파 대비 사람나눔방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면 지역과 같은 소재지 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로당은 어르신복지 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용정원이 10명 미만의 경로당은 물품·장비 보강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만 지원



에 대한 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르신들의 열악한 문화 복지 공간을 보장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이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김 의원은 “본 질의가 경로당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냉·난방비, 간식비 등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고령인구가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진안군의회 의원, 세무·회계전문가,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 위원장인 김종필 부군수 주재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 사용처에 대한 자문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효과분석, 기금활용사업 발굴, 관계인구를 통한 기부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내년도 기금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용담댐 인근 낙후지역 정주여건·생활개선 촉구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 개 마을 1만2,0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되고 있다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민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들어 농사지을 토지가 감소하는 물론이고, 리조트·공장 등 경제기반시설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우리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700억 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담댐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 의원은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로변·공유지 관상수 식재 방안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동창욱 의원(나 선거구)은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의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변·공유지 관상수 식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창욱 의원은 “진안군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329.68km에 밤나무, 이팝나무 등 7만여 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나 구체적인 테마나 계획이 없이 식재하다보니 제대로 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지역의 울창한 임야와 국립지대권 산림치유원을 연계해 ‘힐링케어 1번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계활동 인구 유입과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의 떡거리, 불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의원은 “녹지공간의 확대는 우수한 관광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과 같은 기후환경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다”며 “건강하게 살기 좋은 진안, 힐링공간의 아름다운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상수 식재계획 마련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